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

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2022. 11. 9 (수)



#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#### 건화물운임(BDI)

1,356.0p(+19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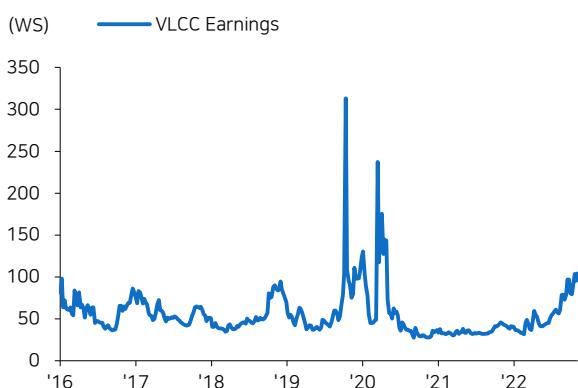
#### 컨테이너운임(SCFI)

1,579.2p(-118.4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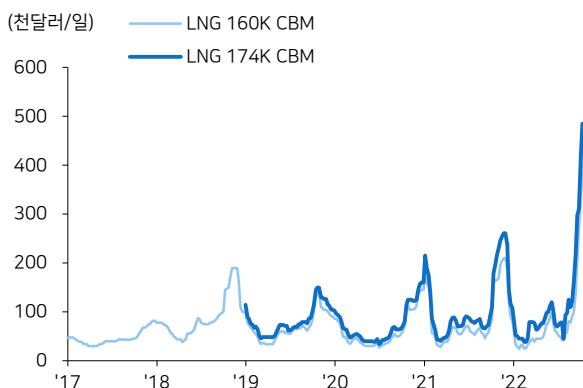
#### VLCC Spot Rate

104.4p(+8.8p WoW)



#### LNG Spot 운임

447.5p(+0.0p WoW)  
485.0p(+0.0p WoW)



##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1.5p(-0.5p WoW)  
172.2p(-2.7p WoW)



#### 항공시장 지표

232.0p(+4.8p DoD)  
92.1p(+1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대우조선해양, LNG 운반선 1척 수주

대우조선해양이 Maran Gas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3,509억원(2.49억달러)에 수주했다고 보도됨. 174,000CBM급 선박으로 2026년 12월 인도될 예정임. (파이낸셜뉴스)

### New Fortress Energy to add 7-mpta of supply by 2024 from its FLNG units

MOL-Cosco가 총 140억달러 이상 규모인 카타르 프로젝트 1단계의 LNG선 마지막 3척을 곧 발주할 것으로 보도됨. 중국 Hudong-Zhonghua에 3개 슬롯을 보유함. 1단계에서 총 66척이 척당 2.15억 달러에 발주되게 됨. (Tradewinds)

### New Fortress Energy to add 7-mpta of supply by 2024 from its FLNG units

미국 New Fortress Energy가 예정된 6개의 FLNG를 가동하면 2024년말까지 LNG 7MPTA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됨. 동사의 'Fast LNG'로 불리는 FLNG 1은 2023년 5~6월 사이 멕시코 Altamira에서 가동될 예정임. 두 번째는 Louisiana에 2척이 설치될 예정임. 2023년 상반기 설치 허가를 받을 예정임. 세 번째 FLNG는 멕시코 Lakach에 설치되며 나머지 5척은 2024년 9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언급됨. (Tradewinds)

### Dozens of coal-fired projects face axe after China pulls overseas financing

중국이 약 20개 국가에 위치한 44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취소했다고 보도됨. 중국이 취소한 최소 20개 프로젝트 중 11개는 중국 지분이 6.6 GW 수준이었음. 중국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는 2017년 피크를 찍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쟁과 투자국가의 재정난으로 계속 축소된 바 있음. (Upstream)

### India's ONGC Videsh set to retake its Sakhalin 1 stake

인도 ONGC Videsh가 사할린-1에 다시 지분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. 10월 1일까지 지분 20%를 지녔는데, 푸틴 대통령이 10월 7일 사할린-1 사업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인수할 새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음. 러시아 당국은 해외지분참여자들에게 11월 중순 이전에 지분 유지 여부를 다시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짐. 한편, 최근 일본은 지분 30% 유지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됨. (Upstream)

### Clarksons says slow-steaming chemical tankers boosted by US exports

Clarksons에 따르면 선속 감속에 따라 케미컬 탱커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도됨. 현재 오더북은 선대의 5% 수준이라고 알려짐. 경기악화로 수요는 강하지 않지만, 벙커유 가격이 상승했고, 선주들은 선속을 줄이며 시장 수급이 더 타이트 해지고 있다고 설명함. 미국 내수 경기 악화 시 물동량이 아시아로 수송되며 톤마일 증가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함. (Clarksons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